천상의 소리로 法音 전하는 '가릉빈가'

L.M.B. 싱어즈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나누고 함께하는 음악 법석 '감동'
7월 13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창단 20주년을 맞은 찬불성악중창단 L.M.B. 싱어즈가 7월 13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기념공연을 개최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창단 20주년을 맞은 찬불성악중창단 L.M.B. 싱어즈(대표 황영선)가 7월 13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기념공연 〈나누고 함께하는 음악 법석 '감동'〉을 개최한다.

20년 동안 L.M.B. 싱어즈를 성원해 준 대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 L.M.B. 싱어즈는 신곡 3곡을 포함해 모두 11곡의 찬불가를 선보인다.

현재 성악과 피아노 전공자 7명의 단원으로 활동 중인 L.M.B. 싱어즈는 1999년 3월 20일 창단됐으며, 그동안 50여 명의 단원이 거쳐 갔다. 자체 공연을 포함해 사찰, 군부대, 병원, 교도소 등에서 900여 회 공연했으며 6개의 음반을 발표했다. 탄탄한 가창력과 음악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여온 L.M.B. 싱어즈는 찬불가는 물론 가곡과 클래식, 대중음악까지 폭넓은 장르의 음악으로 불자는 물론 일반대중과 만나왔다. 그동안 발표한 찬불가와 공연을 통해 보여준 다양한 음악적 퍼포먼스는 한국불교음악의 새로운 길이 되었으며, 그렇게 길이 된 20년은 작지 않은 불법홍포의 역사가 되었다.

사부대중과 함께 그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번 공연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찬탄의 노래 Rapper와 L.M.B. 싱어즈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에서는 L.M.B. 싱어즈 단원들이 작사 또는 작곡한 '어디로 가야 하나', '마음의 소리', '부처님 마음일세' 3곡을 선보인다. 특히 '마음의 소리'와 '부처님 마음일세'는 래퍼 오현탁 씨가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무대다.

△2부 '환희의 만남-하나로 어우러진 동·서양 음악'은 동서양의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진 무대다. 선보이는 3곡은 서양음악을 전공한 L.M.B. 싱어즈 단원들이 작곡한 곡을 국악인 작곡가 함현상이 국악곡으로 편곡한 작품이다. 첫 번째 곡 '자비로움으로 오시는 님(이강식 작사, 김미영 작곡)'은 불보살의 자비를 노래한다. 두 번째 곡, '오직 할 뿐(이강식 작사 석동령 작곡)'은 선불교의 정신이 녹아있는 선시 같은 곡이다. 세 번째 곡, '꽃비로 내게 왔네요(이강식 작사, 황영선 작곡)'는 불교 용어를 최소화하면서 불교적 감성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곡이다. 네 번째 곡 '아니 노지 못하는 청춘 그 어느 땐가'는 한국민요 '청춘가'와 '창부타령'을 합창곡으로 편곡한 곡이다. △3부 '음악법석-감동(感同)'에서는 음악회의 주제인 〈나누고 함께하는 음악법석 '감동'〉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무대다. 20년간 L.M.B. 싱어즈를 성원해준 대중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픈 L.M.B. 싱어즈 단원들의 바람이 담긴 무대다. 먼저 류경아 단원이 뮤지컬 '위키드' 중에서 'Popular'를 노래하고 이어서 '님과 함께'와 '해뜰 날', 뮤지컬 맘마미아 중 'Thank you for the music'이 이어진다.

900여 회 공연 음반 6집 발매
신곡 3곡 포함 11곡 공연
래퍼와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이번 공연은 L.M.B. 싱어즈가 한국의 찬불성악중창단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다. L.M.B. 싱어즈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찬불가 창작과 함께 공연의 스펙트럼을 넓혀 불자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다가갈 생각이다. 아울러 위대한 불교음악인을 조명하는 'Buddhist Hymn Maestro' 프로젝트도 꾸준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L.M.B. 싱어즈는 1999년 창단한 이후 한국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불보살님의 가피와 응원해 주시는 대중 덕분으로 난관을 헤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창단 20주년 기념 공연을 디딤돌로 삼아 불교음악으로 대중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진정한 '가릉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바세계가 불국토가 되는 날까지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천상의 소리로 법음(法音)을 전하는 새, 가릉빈가. 가릉빈가의 묘음은 시방세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가릉빈가는 부처님의 화현이라고도 불린다. 이번 공연을 통해 시방세계 곳곳으로 그들의 묘음이 전해지길 바란다. 이번 공연은 무료다. (02)882-1727.

제 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8월 11일 오후 1시~6시 서울 길상사

(사)맑고 향기롭게(이사장 덕일)는 8월 11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제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사진〉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전국의 초등학생이며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 부분은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나누어 운문과 산문으로 진행된다.



준비물은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원고지 받침대, 돗자리, 물 등이며, 대회용 원고지는 행사 당일 접수 확인 후 지급한다.(대회 당일 배포한 원고지만 제출 가능)

시제는 어린이들의 맑고 향기로운 마음과 연관된 시제를 당일 공개하며, 운문과 산문 각 부문별로 장원(무소유상) 4명, 차상(맑음상) 8명, 차하(향기상) 8명, 장려상 20명에게 시상한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540만원의 장학금과 법정스님의 저서인 '오두막 편지'를 수여한다. 심사위원장 도종환 시인(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 국회의원)과 박형준(시인, 동국대 국어국문문창과 교수), 홍용희(문학평론가, 경희사이버대 교수), 함명춘(시인, 출판인) 등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한다.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는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사)맑고 향기롭게가 개최하고 있으며 단순 흥미 위주의 활동이 아닌 어린이들의 맑고 향기로운 가치관과 문학예술 창작기질을 키우기 위함이다. 광복절 74주년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광복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글제도 주어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당일 가족단위 참가자들과 방문하는 어린이가 자발적이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불교문화행사 등을 길상사 마당에서 운영한다. 행사 당일 참가자 모두에게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실천하자는 운동의 일환으로 봉사자들이 직접 폐현수막을 재생하여 만든 에코백(친환경 가방)에 간식과 기념품 등을 담아 전달한다.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생은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메일(clean94@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 발표는 8월 21일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와 개별연락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식 당일(8월 25일)에는 수상작 발표회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741-4696.

박재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7월 큐레이터와 대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이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21:00까지)에 진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7월의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특별전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7.9~10.27)의 전시 설명회를 시작한다. 이번 특별전은 로마 문화의 원류인 에트루리아를 우리나라 처음으로 소개하는 전시다.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가교 역할을 했던 에트루리아, 그 찬란한 문화유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조선시대 실경산수화를 심층적으로 조명한 특별전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산수화(7.23.~9.22)'의 설명회도 열린다. 화가의 눈으로 본 실제 경치가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리다.

이밖에 상설전시관에서는 '역사 지도(7.3)', '도자기가 완성되기까지, 조선 후기 청화백자(7.10)', '신석기시대의 토기(7.17)', '어린이와 문화재이야기(7.24)', '그림과 지도 사이(7.31)' 등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20명 이상)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관련 리플릿은 상설전시관 안내데스크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배포하며,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관람정보-전시해설-큐레이터와의 대화' 자료실에서 e-book 형태로도 제공한다.

박재완 기자

BTN 불국토상조는 장례포교사

회원가입 문의 : 1577-7675

장엄번 제단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대성인로왕보살과 극락도사아미타불 장엄번으로 제단 장엄

스님 시다림



입관 및 성복례를 하는 동안 스님께서 직접 장엄염불로 영가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모십니다.

지장경 수의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지장경이 새겨진 불경수의와 지장보살상 위패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는 BTN불교TV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로서 불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 6월29일 우량업체 발표.상조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업체 공개명단에 불국토상조가 포함됨

중요정보 고시사항

대표이사 : 구본일 / 홈페이지 : www.btnlife.co.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서울-2011-제68호 /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고객환급의무액 10,286,290,000원 / 상조관련자산 14,001,360,000원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